

화순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 시동'

2025년까지 60개 세부사업 추진...5년간 502억 원 투자 통합지원센터·직매장·농산물 안전 분석실 등 설치·운영

화순군이 올해부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화순형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푸드플랜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뿐 아니라 안전·영양·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대책이다.

화순군은 2019년 농업생산·유통 부문, 안전먹거리 부문, 건강먹거

리 부문, 먹거리복지 부문,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행정협의체(T/F팀·추진단장 부군수)를 구성·운영해 푸드플랜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화순군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략과제와 세부사업 등을 선정,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개 전략과제와 60개 세부사업

을 추진한다. 총 502억 원 투자될 계획이고, 921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올해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산물 안전 분석실 등을 설치·운영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출하 조직, 먹거리 활동가 양성, 생



산자·소비자 교육 등을 추진해 푸드플랜의 핵심 주체인 농가 조직화를 통해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푸드플랜을 추진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

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안정적 판로확보, 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박봉순 나주부시장 34년 공직 마침표

"호남의 중심 나주의 꿈이 이뤄지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힘을 보태고 응원하겠습니다"

박봉순 나주부시장이 길고 긴 34년의 공직생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8대 박봉순 부시장 이임식을 통해 박 부시장의 지난 공직생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인생 제 2막을 응원했다.

박 부시장은 이임사에서 "호남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나주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그동안 한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던 12만 나주시민과 저와 함께 동고동락한 1천여 공직자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고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시장은 1987년 전라남도 공직 입문 후 전남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 주택행정담당(2002),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타켓사업부장(2011), 전남 동부지역본부장(2019) 등을 지냈다.

나주시는 박 부시장 취임 이후 혁신도시 시즌2 개막에 따른 혁신산단 분양률 83%돌파, 호남지역 최후 지역학 연구진출 조례 제정, 마한문화원이 포함된 역사문화관광 정비 특별법 제정,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지 및 2021년 대한민국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지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박봉순 나주부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나주의 행복을 기원하고 사랑하는 동료 직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나주시와의 추억을 갈무리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전남4-H 육성 평가 기관부문 대상·회원부문 우수상

역량개발교육·지역 농업 활성화 등 농업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받아



담양군은 최근 전라남도 4-H본부 주관한 '2020 전라남도 4-H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부문 대상과 청년4-H회원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을 선도하는 청년4-H회의 전문기

술력 향상을 위해 역량개발 교육, 과제활동, 지역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담양군 4-H회 육성과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청년4-H회원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담양군4-H연합회 박기범 회장은 봉산면 와우리에서 담양의 축항 딸기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으로 4-H회와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선도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4-H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담양군4-H연합회는 영농4-H회 1개소, 학교4-H회 4개소, 4-H본부 1개소 248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전남4-H 과제경진 우수상과 우수회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농림보조사업 올해 첫 설명회, 지역 농업인들 '관심'

새해 주요 보조사업 130여 건 추진

장성군이 '2021년 농림분야 보조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담당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2021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및 농정방향 안내 ▲사업별 추진 방향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보조사업 추진 요령 등을 안내했다.

장성군은 '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해 2020년 보조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은 지양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경관단지 조성 ▲명품 쌀·한우 육성 ▲야생대작목 집중 육성 ▲장성꽃 생산기반 구축 ▲유통체계 구축 ▲은

라민 농업교육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해 주요 보조사업 130여 건이 수립됐다. 농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농업 관련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별 개요, 사업 내용, 담당직원 연락처 등이 수록된 2021년 농림분야 보조사업 안내서를 제작해 각 마을회관마다 비치했다.

군 관계자는 "2021년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곡성군이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서비스를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에서 2017년부터 시작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접수기간은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빨라졌다. 대상자들을 조기에 확정해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기간을 보다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202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75세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자부담 2만원)를 발급

받게 된다. 곡성군은 올해 총 3,0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곡성=양해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